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 FAX:245-7550  
인쇄처: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636-9478

# 제45차 정기총회 개최

## - 안강태 현 회장 1년간 유임하기로 - 용마의 밤 격년제로 개최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었던 본부 제45차 정기총회가 지난 6월 25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소재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안강태 회장 (11회·대선조선(주)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는 유공 동문 표창과 주요 행사 보고에 이어 결산 보고와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허홍욱 사무총장·19회)

안 회장은 유공 동문 표창에서 모교 야구 발전에 기여한 6회 동기회장인 이길상 경야회 고문, 20여 년간 후배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최성호(17회·비노기과 원장)동문 등 모교 지원 및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6명, 2007년 모교 방문 홈커밍데이 행사 공로자 8명 등 모두 1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수상자 명단 별표 참조)

### ■용마골프대회 동호회 주관으로

총회는 2007년 결산 보고서에서 △본부 운영(규모 2억 2,895만원) △야구후원회 운영(규모 3,194만원) △회보 운영(규모 2,921만원) 등과 2008년 예산안에서 △본부 운영(규모 2억 2,073만원) △야구후원회 운영(규모 2,985만원) 등을 승인했다. 한편 안상수 본부 감사(24회·신우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

사)의 감사 보고에서는 본부의 각종 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집행이 되었으나 회비 미수금 조속 정리와 모교 60년사, 회보측쇄판 등 미사용 계좌의 통폐합, 용마골프대회 운영을 끝까지 동호회로의 이관 등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6월 25일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제45차 정기총회

### ■회장연임 가능하도록 회칙 개정 ■수석 부회장도 두어

이어 회장 선출에서는 6월 10일 회장단 회의와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검토된 안강태 현 회장의 1년 유임 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안 회장은 4년간을 동창회장으로서 수고하게 되었으며 임기 각각 2년의 29대, 30대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 동창회 회칙 중 제

17조 4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없다.'가 '연임할 수 있다.'로 자연히 회칙이 개정되었으며 수석부회장 제도를 두어 금년 중 수석부회장을 선출하여 내년 정기총회 시 회장으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안강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사정상 이사회와 정기총회가 같은 날에 열리게 되는데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면서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차기 동창회장

은 대승적인 시각으로, 졸업 기수가 다소 파격적이더라도 정말로 동창회를 위하여 몸 바쳐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피력을 한 바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기수에서 차기 회장을 배출해내지 못한 점은 누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동창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어떻게 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진지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하고 모교 사랑,



안강태 회장

동창회 사랑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참여하는 진솔성과 적극성을 강조하였다.

### ■동창회보 본부에서 직접 발송 ■회보 구독료 받도록 결정

끝으로 기타 토의에서는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용마의 밤 행사를 격년제로 열어 과도한 경비 지출을 줄이면서 행사내용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동창회보를 직접 본부에서 동문들에게 개별 발송을 하기로 하며 회보 구독료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발언에 나선 경남고 김종석 교장(24회)은 야구부 숙소인 '남애관' 준공 및 국산관 리모델링 완료, 기숙형 공립학교 신청 예정, 용마장학회 지원에 따른 재학생 해외 현장 학습 등에 관한 보고와 아울러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 미확보 분에 대한 동문들의 지원을 부탁하였다.

### ■동기회 집행부의 분발을 당부

이날 옥윤석 16회 동기회 국장은 미수금이 계속 적체되고 있는 동기회에 집행부의 분발과 대표성 확립을 강조함과 아울러 각종 행사와 회보 발행에 대한 효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변화하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기 위하여 동창회에 대한 동문 모두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분위기를 숙연케 하였다.

## 공로패 수상자

- ◎ 모교 지원 및 동창회 발전 유공
  - △이길상 (6회·경야회 고문·동기회장)
  - △최성호 (17회·최성호비뇨기과원장)
  - △하영수 (17회·용마산악회 고문·한국지공구공업(주) 회장)
  - △김재근 (19회·마창지역 자문위원·동마산병원장)
  - △조장래 (23회·울산지역 수석부회장·(주)효성 전무)
  - △진영술 (24회·전남지역 회장·(주)포스코연구소 이사)

- ◎ 홈커밍 행사 공로 (2007년도 본부·재경동기회장)
  - △이명, 이상석 (11회·50주년)
  - △이재호, 김동현 (21회·40주년)
  - △정정남, 조정제 (31회·30주년)
  - △추교용, 홍종철 (41회·20주년)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모교출신 당선자

지역	선거구	소속정당	성명	기수
서울	강서갑	한나라당	구상찬	31
	중랑을	한나라당	진성호	35
부산	서	한나라당	유기준	32
	영도	한나라당	김형오	20
	남을	한나라당	김무성	24
	북-강서을	한나라당	허태열	18
	해운대-기장갑	한나라당	서병수	25
울산	사하을	통합민주당	조경태	40
	중	한나라당	정갑윤	23
경남	창원을	민주노동당	권영길	15
	김해을	통합민주당	최철국	25
	양산	한나라당	허범도	22
	남해-하동	한나라당	여상규	22

- 산악회 백두대간 종주 ▶ 2면
- 홈커밍데이행사 ▶ 5면
- 체육부속시설(남애관준공) ▶ 8면

## 동창회보 개인별 직접 발송      본부 홈페이지 개편      http://kyungnam.or.kr

금번호부터 동창회의 동정을 전 동문이 접할 수 있고 기별 회보 담당자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동창회보를 동문 개인에게 직접 발송하여 드립니다.

이에 따른 발송 비용 및 발행 제반 경비의 증가에 따라 회보 구독료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호부터 회보 구독료 납부 지로 용지 첨부 발송)

**전 동문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회보 개인 발송은 우선 자체 회보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는 재경지역과 해외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동문 대상으로 발송하며 재경과 해외 지역은 예전과 같이 택배로 우송합니다.
- 회보 구독료 연간 2만원 예정.

**들어와 보십시오!!**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지나간 회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개선 보완해 가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 동호회, 기수별 홈페이지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부 E-mail주소 : yongma2007@hanmail.net  
(공지사항, 회보 기사 내용 등 접수)

## 2008년 용마장학회 예산

기본재산: 16억 2천 8백만원

### [수입부문]

- 1.이월금: 27,028,746원
  - 2.이자수입금: 70,004,000원
  - 3.법인세환급금: 11,650,540원
- ☐ 합계: 108,683,286원

### [지출부문]

- 1.경남고 장학금: 40,600,000원  
(성적 및 특기 우수 재학생)
  - 2.경남중 장학금: 9,000,000원  
(성적 우수 재학생)
  - 3.경남중 · 고 체육지원금: 45,160,000원
  - 4.법인세: 11,396,000원
  - 5.회계수수료, 주민세 등: 1,768,500원
  - 6.이월금: 758,786원
- ☐ 합계: 108,683,286원

## 고문 · 회장단 회의

### - 본부 부회장 보강

본부 고문 · 회장단 회의가 지난 6월 10일(화) 오후 6시 30분 범일동 일직집 대어에서 열려 차기 회장 선출, 모교 지원, 장학회 관련 보고 등 동창회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주요사항보고 등이 끝난 후에는 차기 동창회장 선출에 대하여 본격적인 토의가 있었다.

차기 회장 선출 건에 대하여 각 기수별 집행부와 의견도 교환하고 차기 회장감으로 추천을 받은 동문과도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선뜻 동창회장직을 맡겠다는 동문이 없다는 사

무국의 보고를 받은 본부 고문과 회장단 일동은 동창회의 앞날을 걱정하며 현 회장인 안강태 회장에게 정기총회 전 까지 차기 회장직을 물색해 보겠으나 전혀 가능성이 없을 시에는 어렵더라도 현 동창회 실정을 감안하여 1년간만 더 수고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한편 회장단은 본부 부회장을 필요할 시 교체 또는 보완을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모임 때에는 동창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문들을 좀 더 많이 초청하기로 하였다.

## 본부 이사회도 열려

### - 안 회장 유임 수락 받아

일정 사정으로 정기총회가 있던 같은 날 오후 6시에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본부 이사회를 열어 '07년 본부 운영 등 결산 보고와 '08년 예산 안 심의를 하였으며 용마장학회 예 · 결산 보고 등 본부 이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매웠다.

이사들은 한결같이 정식으로 임기를 끝낸 안 회장 후임을 이 날까지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안 회장에게 건강상 다소 무리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1년간만 더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를 해주길 청하여 마침내 안회장의 수락을 받아내었다.

한편 이사회는 이어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예 · 결산 외에 이날 토의 또는 감사 의견(미수금 정리, 미활성 계좌 통합 관리, 각종 행사 효율성 제고, 회보 개인 발송, 회보구독료 납부, 회장 선출, 회칙 개정 등)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 통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8회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

### - 제29회(A조), 연합팀(B조) 우승



6월 29일 개최된 제8회 용마바둑대회

제8회 기별대항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가 지난 6월 29일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대림빌딩 4층 중앙바둑센터에서 150여명이 넘는 선수와 응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바둑회장 · 강수경 · 21회)

이 날 대국의 결과로는 A조에서 만년 우승팀인 제29회가 올해도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16회가 준우승, 28회가 3위, 13회 A가 4위를 차지하였다.

B조에서는 40회가 주축이 된 연합팀이 예상을 뒤집고 우승을 하였으며 12회가 준우승, 17회가 3위, 13회 B가 4위를 하였다.

이번 대회는 각 조 우승팀에게 상금 50만원과 트로피, 준우승팀에게 상금 30만원과 트로피, 3위와 4위에게도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임강택(22회)동문을 비롯한 용마바둑회의 핵심 멤버들은 바둑 TV주관 'YES24 고교동문 바둑대회'에 출전하여 1차전에서 경동고를 물리치고 7월 20일 제물포고와 2차전을 치를 예정으로 있다.

## 마항지역 체육대회



마산 · 창원지역 동창회(회장 · 김우홍 · 22회)는 지난 5월 18일 마산 구암고

## 용마산악회 정기산행

### - 34차 거제 계룡산, 35차 함안 거망산 등반

용마산악회 2008년 제 1차 정기산행을 지난 3월 9일 경남 거제 근교 계룡산(568m)에서 가진 이후 제2차(총35차) 정기산행이 정영천 회장 외 동문 및 가족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8일 경

### - 백두대간 종주 시작

용마산악회(회장 · 정영천 · 21회) 진부령에서 지리산까지 2년 6개월간의 소요 계획을 세우고 백두대간 등정에 나섰다.

한반도의 등뼈인 백두대간을 종주함으로써 자연과 국토를 사랑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용마인의 기상을 떨치기 위해 시작한 백두대간 1차 산행은 지난 6월 21일(토)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부령 ~ 미시령 구간에서 가져 선 · 후배 상호간의 우의와 단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2차 산행은 7월 5일(토) 57명이 참여해 한

남 함안군에 위치한 거망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용마산악회는 오는 9월 21일 경북 안동 조령산에서 제3차 정기산행 겸 경북 합동 정기산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령 ~ 단목령 구간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매 산행마다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각 기별 산악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30차 가족사랑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200여명 용마 가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는 특히 울산지역 동창회원들이 박홍조(22회) 회장을 비롯하여 대거 참석하여 더욱 흥이 나는 잔치가 되었다.

족구, 배구를 시작으로 퀴즈열전, 낫다리 밟기 등 게임 수만 10개가 넘어 참석 가족들은 해지는 줄을 몰랐으며(게임진행 · 김경진 ·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 · 44회) 시상품도 너무 많아 참석자 모두가 한 아름씩 선물을 받아갔다고 한다.

##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8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



	A조	B조
우승	29회 연합팀	
준우승	16회	12회
3위	28회	17회
4위	13회A	13회B

### 〈용마바둑회 임원〉

#### ◎ 고 문

안강태(11회) · 대선조선(주) 대표이사  
한병조(13회) · 에이원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문운용(14회) · (주)프로텍오일 대표이사  
김동희(18회) ·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 자문위원

임용수(13회) · 덕성염료상사 대표

#### ◎ 회 장

강수경(21회) · DSG대동월페이퍼(주) 상무이사

#### ◎ 부 회 장

김상수(25회) · 김상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명철(25회)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백승엽(27회) · 부원스포츠 대표  
이석조(29회) · 노스페이스 서면점 대표

#### ◎ 총 무 단

총무이사 임강택(22회)  
총 무 김성희(28회) · (주)현대자동차  
총 무 이관선(28회) · 이관선바둑교실 대표  
총 무 조남훈(34회) · 쌍용자동차(주) 강서영업소

6회 동기회 정기총회



지난 5월 17일 서구 송도에 있는 송도공원 회 전문점 4층에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동기회가 총회 및 야유회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이길상 회장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유임하였고 임원들 모두 유임하였다.

9회 동기회 정기총회



지난 5월 2일 부전동 대림빌딩 17층 뷔페홀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돈 회장의 주재로 9회 동기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최성욱 국장의 사회로 결산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신임 회장에 이대규(주)해진기업 대표이사) 동기를 선출하였다. 감사 신도수, 국장 최성욱 동문은 유임되었다.

13회 동기회 봄나들이 단합대회



봄을 맞아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여 1953년~1959년의 옛 학창시점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그 날들의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간의 우정을 나누고자 13회(회장 강기웅) 동기생 32명은 4월 21일(월) 관광버스 편으로 삼천포 일원으로 봄나들이를 나갔다.

14회 동기회 정기총회



지난 4월 16일 중앙동 무역회관에서 이승오 회장을 비롯한 40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14회 동기회 정기총회를 열어 현 이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 추대하고 현 이재인 국장도 유임하였다. 감사는 신현호 동문을 새로 선임하여 박중철 동문과 함께 수고하도록 하였다.

16회 동기회 동기회장 진병일

16회 동기회는 지난 3월 19일 중구 중앙동 명성관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진병



임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회장은 마산 소재 (주)대아건설 대표이사직을 맡아 경남지역 건설 산업에 인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2003년 본부 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자랑스러운 용마이다.

18회 동기회장 김만근



지난 2월 26일 서면 동기회관에서 30여명의 동기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남두진 회장의 후임에 김만근 동문을 추대,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기생들의 삼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동기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이재일 동문을 국장직을 맡도록 하였다.

20회 동기회 정기총회



지난 3월 25일 서면 도새기촌에서 동기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회 동기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총회는 결산보고,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고, 우철성(경희산업(주) 전무이사)동문을 2008년 동기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5회 동기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2일 서면 소재 스팀팟 뷔페에서 4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동기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송정규 회장을 이을 신임회장에 김수룡 동문이 선출되고, 감사에는 김상수 동문이 유임되었다.

국장 이상형 동문의 유임에 여성조 동문을 복수 국장으로 선임하였다.

30회 동기회 정기총회



지난 3월 26일 정성원 동문이 운영하는 서면 강화 삼계탕에서 박진수 동기회장을 비롯한 40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김현태(상명무역 대표)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은 전웅택 동문, 최우현 동문이 선출되었다. 국장에는 배경조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우홍제 동문은 유임되었다.

31회 동기회장 심규열

제31회 동기회는 지난 2월 27일 7시 민락동 용마횃집에서 '08 정기총회를 열어 심규열 동문을 제13대 신임회



장으로 선출했다. 정정남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3명이 참석하여 2월 16일자 정기총회 결의사항을 고지 및 일부 수정한 후 박경수 동문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김태근, 이용호 동문을 국장으로 선출하였다.

36회 동기회 정기총회



제36회 동기회는 지난 4월 16일 코모도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김철원, 국장 우한주 동문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고 부회장단을 신선히여 동기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어 6월 19일에는 회장단이 모여 경조사 확대 시행, 동기 수첩 제작, 소그룹 동호회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

뉴질랜드 지역 동창회 정기총회 & 시니어 모임



지난 3월 8일 오를랜드 중국식당 대화실에서 동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회장 박봉수(33회) 주재로 뉴질랜드 지역 동창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신임회장에 정강홍(15회) 동문, 감사 차준호(18회, 옛 이름 차순도) 동문, 그리고 사무국장 김성종(36회) 동문이 새로이 선임되었고, 동창회 회칙을 개정하였다.

한편 뉴질랜드 지역 동창회 "시니어 모임"이 지난 2월 4일 오후 6시 30분 North Sea Village 레스토랑에서 정동호(23회) 동문 주관으로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다. 2006년 10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인 부부동반 모임을 가지며 결속과 우의를 다지고 있는 시니어동문들의 이번 회합에는 박웅진(6회) 동문을 비롯하여 조학제 (11회) 동문, 박성규(13회) 동문, 정강홍(15회) 동문, 김수홍(16회) 동문, 차준호(18회) 동문, 정동호(23회) 동문 등이 부인들과 함께 참석하였고 휴가차 뉴질랜드를 방문한 윤휘정(15회) 동문도 참석하였다.

제40회 기별야구대회 폐막(재경)

지난 6월 8일(일) 우리은행 도농구장에서 거행된 제40회 회장기장탈 기별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관북의 24회가 젊은 48회를 접전 끝에 15대 12로 꺾고 기별야구대회 사상 최초로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24회 동문들은 구본준 감독과 뜻을 합쳐 고된 훈련과 핸디캡을 극복, 24년의 나이차를 뛰어넘어 기별야구대회에 새 금자탑을 쌓았다.

한편 48회도 결승에 오르기까지 동기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신에답지 않은 기량으로 해성처럼 등장해 밤군의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폐회식은 강실근 사무총장(23회)의 사회로 김영목 기별야구회장(23회)의 폐회사, 배재욱 회장과 한준석 고문의 축사, 대회 성적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팔회 소식(재경 제8회 동기회)

재경 경팔회(회장 강돈수)는 지난 3월 10일 청진동 흥진옥에서 회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원선임에서 부회장 5명은 유임, 3명은 세부회장으로 보강 증원되었으며, 연달 정기총회(송년의 밤)는 12월 8일로 정하고, 회원명부 수정의 규격은 소형 수첩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매주 토요일마다 수락산,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을 차례로 올라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동기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3월 13일, 4월 10일, 5월 8일에 기흥 C.C 동-남 코스에서 월례회를 가졌고,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3월 1일, 4월 5일, 5월 3일 한일 기원에서 정기모임을 열어 회원들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였다.

경열회 소식(재경 제10회 동기회)

모임 이름	모임 일시 및 참석 인원	회장	비고
강남화요회	3/25, 4/22, 5/27, 6/24 배나무골	김해룡	
강북화요회	3/4, 4/1 부민옥	김동근	장소변경
	5/6, 6/2 행복문화원		
경목회	3/28, 4/23 남 여주 GC	이정배	운영 방식 변경
	5/21 남 여주 GC		
동수회	3/25, 4/22, 5/27, 6/24 금연기원	신용범	
분당화요회	3/11, 4/15, 5/20, 6/17 기와집 순두부	조수영	세번째 화요일로 변경
사니즈아	3/15 대공원 전철역 매표소 앞	이계창	
	4/20 수서역 매표소		
	5/10 북한산구파발역 개찰구		
	5/18 북한산이북5도정 앞		
	6/7 낙성대 전철역 매표소 앞		
열금회	3/14, 3/28, 4/11, 4/25, 5/9, 5/23	성온	
	6/13, 6/27 대공원 전철역 매표소 앞		
일금회	3/28, 6/6 마라도	손정	
정우회	3/20, 5/15, 6/19 평촌중앙공원 테니스장	정상수	

**박희태 (11회)**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



지난 7월 3일 한나라당 전 당대회에서 박희태(11회) 전 국회의원이 임기 2년의 새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친화력, 순발력, 정치력이 뛰어난 '화합형 대표'로 통하는 박 동문은 검사장 출신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7대 총선까지 경남 남해·하동에서 내리 5번 당선된 당내 최고 원로다. 민정당과 민자당 대변인,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원내총부, 한나라당 부총재·최고위원·대표를 지내는 등 주요 당직을 두루 섭렵했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거쳐 본선에서 법률담당 상임고문을 역임하였다.

**양휘부 (16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양휘부 동문이 6월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에 선임됐다. 양 동문은 고려대 정치학과를 나와 70년 대한일보 정치부 기자로 입사하면서 언론계 생활을 시작했으며 73년 KBS보도국 정치부 기자로 옮긴 뒤 해설위원, 창원방송총국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는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했으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다.

**권철현 (19회)**  
**주일대사**



권철현(19회) 동문이 지난 4월 17일 신임 일본대사로 부임했다. 권 동문은 일본 쓰쿠바대학원에서 도시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 겸 간사를 맡았던 국회 내 일본통으로 지난 대선 때는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을 맡았다. 권 동문은 연세대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수협의회 의장, 부산 YMCA 이사를 역임했고,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故 권훈칠 (20회)**  
**동문 유작전**



부산 출신의 서양화가 故 권훈칠(20회) 동문의 작품 10점이 부산시립미술관에 영구 소장된다. 권 동문의 가족은 "권훈칠, 탈 집점의 미학"展(4월 11일~5월 25일)을 통해 70년대 한국 서양화의 큰 획을 그은 그의 작품을 부산 미술계에 소개하고 그 중 10점을 부산시립미술관에 기증기로 했다. 국무총리상, 문화공보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고 국전 추천작가로도 초대된 권 동문은 자기 생전에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이한 작가이지만 한국 서양화의 정통과적 화풍을 구축하려고 애썼던 작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형오 (20회)**  
**국회의장**



김형오(20회) 동문이 7월 10일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에 화합형 지도자로 평가되는 김 동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기사를 거쳐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고, 14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부산 영도에서 내리 5선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입류국가비전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구본홍 (20회)**  
**YTN 사장 내정**



구본홍(20회)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좌교수가 지난 5월 29일 케이블 뉴스채널 YTN의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구 동문은 MBC 보도국 기자, 보도국 정치부 부장, 보도국 국장, MBC 보도본부 본부장을 역임했고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언론 특보를 지낸 구내정자는 7월 14일 예정된 YTN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도 추대될 예정이다.

**정국록 (20회)**  
**아리랑TV 사장**



6월 9일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사장에 정국록 동문이 취임했다. 서울대 독문과 졸업 후 70년 MBC 보도기자로 입사한 정동문은 MBC 런던·파리 특파원, MBC 보도국 부국장, 전주 MBC 사장, EBS 이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 방송특보로 활동했다.

**오거돈 (21회)**  
**한국해양대총장**



오거돈(21회)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한국해양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오 동문은 취임사에서 "인재양성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변화와 혁신, 통합의 리더십으로 한국해양대를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대학'으로 만들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박사이기도 한 오 동문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동기회장·본부 동창회 부회장 등을 지낸 오 동문의 민행이 오완수(11회·대한제강(주)회장)동문으로 본부동창회 자문위원이다.

**이종상 (21회)**  
**토공 사장**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이종상(21회) 동문이 7월 2일 취임했다. 1949년생인 이 동문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단국대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동문은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하다 제13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건설안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장수만 (23회)**  
**조달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수만(23회) 동문이 지난 3월 10일 제 26대 조달청장에 취임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시작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증권제도담당관과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쳐 2004년부터 3년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초대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명규 (24회)**  
**중앙경찰학교장**



이명규 동문(24회)이 지난 3월 4일 부산지방경찰청장에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올랐다. 이 동문은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경찰간부후보생 25기로 경찰에 입문하여 부산진경찰서 수사과장·대통령 비서실·동래경찰서장·강원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구본준 (24회)**  
**프로야구 LG 새 구단주 취임**



구본준(24회) LG상사 부회장이 지난 3월 26일 프로야구 LG의 2대 구단주에 취임했다. LG전자 부장으로 입사, LG화학 재무, LG반도체 사장을 거쳐 LG 필립스 LCD 사장, 부회장을 지낸 구 동문은 야구 마니아로서 평소 모교 야구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경남중고 기수별 야구팀 멤버로 한 달에 한번씩 경기에 참가하여 투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김남일 (25회)**  
**경기도 부교육감**



김남일(25회·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지원관) 동문이 4월 21일 경기도 부교육감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2회 출신으로 인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대 사무국장 등을 기했다.

**박인국 (25회)**  
**유엔대사**



박인국(25회) 전 다자외교 조약실장이 지난 4월 14일 주(駐)유엔대사에 임명되었다. 박 동문은 1990년대부터 다자(多者) 간 군축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온 직업 외교관으로 경수보사업지원기획단 등을 거치면서 북한 핵 문제에도 관여한 바 있다. 서울대 증분과를 졸업하고 12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박 동문은 유엔 2과장과 대통령 국제안보비서관, 주 쿠웨이트 대사, 주 제네바대표부 군축·인권담당 차석대사 등을 역임한 다자외교통이다.

**박종국 (26회)**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취임**



지난 5월 9일 박종국(26회) 전 울산지방해양청장이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에 취임했다. 행시 23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박 동문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장, 무역진흥과장, 유통정책과장을 거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수산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다.

**김수민 (26회)**  
**부산지검장**



김수민(26회)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지난 3월 11일 부산지검장에 취임했다. 상군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으로 23년 전 부산에서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보호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찰의 '빅 4' 자리 중 하나인 대검 공안부장 후보에 오르

**검찰인사**

- 김수민 (26회) 부산지검 지검장
- 문규상 (27회) 청주지검 차장검사
- 김인호 (28회) 서울고검 검사
- 조한욱 (29회) 광주고검 차장검사
- 김정현 (34회) 서울지검 공판부장
- 정인창 (37회) 김천지청 지청장
- 이태한 (38회) 부산지검 공판부장

내렸을 정도로 공안 수사로 잔뼈가 굵은 공안통이다.

**하영제 (27회)**  
**산림청장**



하영제(27회) 전 남해군수가 지난 3월 8일 산림청장에 취임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거쳐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하 동문은 산림청 유통개발계장, 경남 거창군수, 진주시 부시장을 거쳐 민선 3·4기 남해 군수를 역임했으며, 탁월한 실무능력을 인정받은 정통 내무관료이자 행정전문가다.

**권명보 (27회)**  
**국제신문 사장**



국제신문은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으로 권명보(27회·국제신문 상무이사) 동문을 선임했다. 권 동문은 1980년 국제신문 기자로 입사해 광고국장, 편집국장, 논술위원 등을 지냈다.

**이기우 (27회)**  
**중진공 이사장**



전 중소기업청 차장 이기우 동문이 6월 1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행시21회로 입문하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기업성장지원국장, 정책본부장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이 동문은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채경수 (31회)**  
**대구 국세청장**



신임 대구 국세청장에 채경수(31회) 동문이 지난 4월 1일 취임했다. 채 동문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80년 행시 23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몸을 담아 감사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울청 조사2과장을 거쳐 최근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추진 기획단에서 일을 하였다.

**김대식 (32회)**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대식(32회) 동문이 6월 2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되었다. 전국 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회장, 한국 일본학연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 동문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 비서실 네트워크 팀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부산 동의대를 졸업하고 한남대와 일본 오타니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서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 ‘우정은 영원하다’ - 모교 방문 홈커밍데이

모교방문 홈커밍데이를 맞은 용마가족들이 '마음의 고향' 구덕동산의 너럭바위에 둘러앉아 모교 교정의 신록보다 더 푸른 우정을 나누고 은사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는 대들보 하나를 헌정하기 위하여 모였다. 졸업기념 40돌을 맞은 제22회 동기회는 5월 24일 개별적으로 모교 방문 후 경주 소재 코모도호텔 일원에서 공식 행사를 가졌으며 30돌의 32회, 20돌의 42회는 모교를 방문한 후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조선 비치호텔에서 각각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한편 제12회 동기회는 오는 가을에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천년고도 경주에서 한데 어울려

### 제22회 동기회

제22회 동기생들이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주 코모도호텔 일원에서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동기생부부들과 서울, 마산, 울산 등지의 국내 거주 동기생부부들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미국 동부 및 서부 지역 동기생들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기생부부들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행사는 행사 추진위원장 겸 본부 동기회장인 유재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재경 동기회장인 안영수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된 여상규, 허범도 동문에게 동기회장단의 금배지 증정식이 모든 동기생들의 축하와 환영의 박수 속에 진행되었고, 이어서는 그간 동창회 활동에 크게 기여한 김학균, 박재상, 김원주, 김동환, 김진영 동문에게 동창회장의 공로패 수여와 모

교 발전에 기여한 김우홍, 박흥조, 이재호, 배호원, 조순태 동문에게 경남고등학교장의 감사패 전달, 그리고 동기회 활성화에 기여한 이경상 동기 외 11명에게 동기생 일동의 공로패 전달식을 가지고 교가 제창을 끝으로 공식 행사를 마쳤다. 만찬에 이어 여흥행사에는 서로 장기를 자랑하며 시간의 한정으로 아쉬움을 단체로 달래 가는 가운데 경주의 밤은 깊어 갔다. 이튿날 아침 식사 후 등산 매니아들 30여 명은 경주 남산 등산을 한 후 점심 장소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동기생부부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코



스로 기억이 아련한 불국사와 석굴암 탐방을 마치고 점심 장소인 감포의 횡집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싱싱한 자연산회 등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후라 경고'를

외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한편, 제 22회 동기회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경남고에 500만원, 경남중에 200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 ‘돌아와요 부산항에’ 다음을 기약

### 제32회 동기회

제32회 동기회는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모교인 경남고에 모여 교정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국산관과 원형관을 배경으로 단체 기념 촬영도 하면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의 스타트를 끊었다.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되새김질한 150여 명의 동기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공식 행사장인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이동하여 여장을 풀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1부 행사는 동기기회와 은사가 입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은사들이 별호와 함께 소개될 때 마다 박수와 합성이 정신없이 터져 나왔다. 이어 본부의 이성호, 재경의 마승철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총동창회장의 축사는 동문인 서병수 국회의원 (25회 · 해운

대 - 가장 감이 해주었다. 본부 동창회장의 공로패는 이문영, 이관우, 이정돈, 손영종 동문이 경남고등학교장의 감사패는 안태원, 안원철, 김대식, 차명훈 동문이 각각 받았다. 한편 32회 동기회는 후배 장학금으로 900만원, 모교발전기금 200만원을 경남고에 전달하였다. 이어진 2부 한마당 여흥 시간에서는 졸업 30주년 모교 방문

을 축하하고 서로의 건승을 기념하는 건배가 있었으며 초청된 프로 밴드팀의 주도하에 옛 추억을 떠올리는, 말 그대로 '추억의 밴드 공연'이 있었다. 가수 김혜연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자 바로 즉석 장기자랑과 지역별 게임 대항전이 벌어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다음날 유람선인 티파니 21호를 타고 런치를 겸한 부산항 투어를 하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합창과 함께 다음 만남 것을 기약하였다.



## 동기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

### 제42회 동기회

제42회 동기회는 지난 6월 28일 졸업한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모교 국산관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준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경동기회에서 불씨를 당기고 그 불씨에 본부 동기회가 힘을 합쳐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사 준비를 완료했다는데 42회의 저력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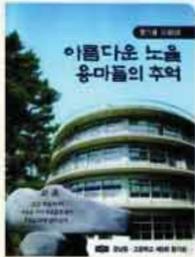
주었다. 준비위원장 박동식 동문의 동기기회 입장으로 시작된 공식 행사는 본부 김영태 회장의 인사, 본부 동창회장 공로패와 경고 교장 감사패 수여, 교가 제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 · 민성기 동문) 동창회 공로패는 송지훈, 배정석, 김영태, 성창의 동문이, 경고 감사패는 문강한, 강승완, 박동식, 송정열 동문이 각각 받았다. 동기기회에서는 모교에 발전기금 500만원, 동창회에 우수 야구 선수 지원금 400만원, 재경 장학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장소를 옮겨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2부 행사에서는 3학년 재학 시 담임선생님들을



## 졸업기념 문집 발간

**9회** 제9회 동기회는 지난 6월 1일, 모교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록 『아름다운 노을, 용마들의 추억』을 발간했다. 총 637쪽에 이르는 이 책에는 김계곤 · 민성기 · 이현기 은사님, 권명미 전 경남고 교장, 그리고 국내외 동문 77명의 글이 실려 있으며, 2년 4개월간의 긴 시간과 공을 들인 끝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광복과 6·25 전쟁,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거친 그간의 인생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동기들의 지식이 고스란히 나

타나 있는 이번 회고록은 일찍 타계한 동문들의 유고가 함께 실려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낸 인생 선배들이 들려주는 희망과 조연의 메세지가 담겨있기에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자손과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10회** 제10회 동기회가 모교 졸업 5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록 『구덕 동산 마음의 고향』을 출간하고 지난 5월 9일 언론회관 19층 대화홀에서 동기들과 은사 김계곤 선생, 재경 동창회 배재욱(17회) 회장, 한준석(3회) · 김경희(9회) 고문, 기타 선후배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회고록 『구덕 동산 마음의 고향』에는 동기들의 글 모음, 설문조사, 좌담회, 화보 등이 실려 동기들의 생각과 인생이 고스란히 나타나있다. 55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양장본으로 묶고, 글속에 사진을 삽입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우리들의 추억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동기 모두의 인생 증언과 철심 평생의 회노애락을



가감없이 엮어 낸 이번 회고록은 훗날 자손과 후배들에게 물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기획과 구성이 알차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해 주신 김계곤 은사님께 기념장과 기념품을 드리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대금 연주와 아리아 열창을 끝으로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10회 동문들은 10년 후 졸업 회갑 기념집 발간을 다짐하였다.

비롯한 은사님 소개에 이어 재경 송지훈 회장의 인사, 은사 대표 격려사 등이 있었으며 '우리의 우정이 영원히 변치말자'라는 건

배 제의를 시작으로 한바탕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뒤풀이는 마리나센타 지하 라이브 팝 스퀘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이어졌다.

제 1-8 회

노재조(1회) = 6월 11일 별세. 삼성병원
김성희(4회) = 2월 25일 별세. 원내아산병원
김진호(6회) = 5월 17일 별세.
김부용(7회) = 6월 9일 별세. 좋은강안병원
윤진현(7회) = 전 동아대 교수. 「한반도 본단지(분단의 과정과 전쟁의 책임)」 발간.
장혁표(8회) =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3월 8일 부산총사단(회장 배영호)이 제정한 '제12회 존경받는 인본상' 수상.

제 9 회

김수안 =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2동 123 대화현대2차APT 207동 902호. (051)897-7567·019-551-7369
김왕국 = 5월 23일 별세.
박성조 = 배틀런 자유대학 종신교수. 6월 16일 서울대에서 마지막 강의 끝내고 종강. 6월 17일 부산으로 이사. 특위에서 부인 메히틴드여사가 입국하여 이사를 도움.
박화철 =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02. (055)354-4881·011-9817-4881
박현수 = 의정부로 이사. 경기도 의정부시 기동2동 401-33. (031)837-1626
신도수 =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벚치APT 16동 207호. (051)555-5335·016-455-3412
심재훈 = 영등포요셉의원에서 45년간의 진료봉사를 끝내고 6월 15일 미국 플로리다로 귀일. 내년부터는 자메이카로 봉사지역을 옮길 예정.
윤형원 = 전 충남대 총장. 5월 24일 장남 결혼. 대전 유성구 노은동 성당
이대규 =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78-12 남정빌딩 201호 (주)해진기위 대표이사 회장. (051)467-9282 F.(051)467-8647·016-551-5005
장병국 =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우성APT 101동 1105호. (051)623-4438·011-9714-4438
장세길 = 샌프란시스코에서 5월 20일 워시 귀국했다가 6월 19일 귀위. 경구회(서울)에 2배달러. 부산 경구회에 100달러 기탁.
조동훈 = 지난 5월초 미국에서 입국. 5월말까지 부산에 체류한 예정.
한경수 = 보스턴에서 6월 14일 워시 귀국. 6월 24일 귀일 예정.
한동대 = 부산시 동구 수정1동 1043-52 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 원장. (051)441-5071·010-2086-5766

제 10 회

김철희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APT 104동 2408호. (051)264-5289
서봉원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000-31. (051)959-2387
서진홍 = 4월 22일 한국수필문학작가협회 이사로 위촉.
실종관 =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18-1 화목 APT 1408호. (051)554-2561
윤봉희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00 롯데3차APT 306동 1502호. 전화 (051)747-0456

제 13 회

강수민 =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84-3 정원하이츠빌라 B동 405호 남산요양병원장. (051)513-1284~5
강종원 = 부산시 해운대구 만어1동 장산롯데친대 105동 1806호
김용길 = 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원주피해자협회 회장으로 당선.

(02)925-3151

김운암 = 5월 4일 삼남 김훈. 울산 삼산컨벤션웨딩
나훈남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948-5
박경오 = 5월 14일 별세. 고신의료원 장례식장
박양웅 = 부산시 북구 덕천2동 331-11
성영환 = 4월 22일 삼녀 결혼. 서울 노보텔엠메시더 2층 샬레인홀
양호열 = 5월 9일 부인 별세. 동두천 성모병원 장례식장
이종영 = 부산시 사하구 하남동 가다타운APT 201동 301호
임성화 = 3월 29일 차남 결혼. 서울 익삼동성당
정영일 = 5월 31일 이사.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49-23
주대길 = 6월 29일 별세. 일산병원 장례식장
조용갑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롯데캐슬다스더즈 102동 501호.
천제혁 = 5월 28일 삼녀 결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추성호 = 5월 25일 장남 결혼. 서울 서초웨딩홀

제 14 회

김인환 = 3월 14일 모친 별세.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박정명 = 4월 12일 차녀 결혼. 서울 여의도 웨딩컨벤션
성이경 = 3월 13일 장인 별세. 인천 길병원 영안실
송재현 = 부인 '박유희'화가 개인전. 5월 14일~5월20일 서울 종로간지동 목인갤러리
이동영 = 4월 26일 장남 결혼. 웨딩의전당
이영준 = 4월 20일 딸 결혼. KTX 예식장
이진우 = 4월 19일 장모 별세. 서울대병원 영안실
조영봉 = 4월 20일 딸 결혼. 부산호텔
진성태 = (직장)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72-24 순영의료재단 순영병원 원장. (055)854-6000 / (주택)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388-1 삼성APT 102동 105호. (055)854-3776

제 15 회

서상원 = 6월 5일 부친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준 = 4월 7일 부친 별세. 서울원내아산병원 영안실. 6월 14일 막내 아들 결혼. 진주시청 시민홀

제 16 회

故 변용현 = 7월 4일 아들 결혼. 신자중 소망교회 선교관
서상준 = 6월 5일 부친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종철 = 부산 남구청장. 4월 27일 장녀 결혼. 조선미치호텔

제 17 회

강우훈 = 5월 26일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김영진 = 3월 30일 장모 취임. 해운대 온누리교회
김창운 = 6월 14일 장남 결혼. 코모도호텔
손성근 = 동아대의료원장. 3월 21일 제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암 관리사업에 헌신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
이형우 = 5월 25일 장녀 결혼. 부산관광호텔
정의구 = 3월 20일 별세. 신다산병원 장례식장
전순경 = 5월 18일 장녀 결혼. 중앙아트웨딩홀
추봉실 = 5월 10일 장남 결혼. 남천성당

제 18 회

어디서 무엇을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6월 25일 모친 별세. 삼성서울병원
김종금 = 5월 18일 장남 김훈. 웨스턴조선미치호텔
김재경 = 3월 2일 장녀 결혼. 삼성컨벤션웨딩홀
박준심 = 5월 17일 부친 별세. 울산전문장례식장
박창병 = 3월 2일 별세. 서울 강남정보병원
송실 = 5월 24일 장녀 결혼. 서울 고대웨딩프라자
신영철 = 3월 15일 장남 김훈. 서울 판레스호텔
오세복 = 3월 15일 장녀 결혼. 서울 판레스호텔
양정만 = 2월 25일 「Cafe & Bar Liebe」 개업. 연산로터리부근. (051)867-6218·011-579-3942
유성룡 = 4월 20일 장남 김훈. 대전 둔산 KT 충남본부 2층 예식홀
육병규 = 3월 30일 장남 김훈. 부산진구청 웨딩홀
이강남 = 5월 25일 별세. 신주의료원
이우삼 = 5월 24일 장남 결혼. 부산진구청 웨딩홀
이의희 = 6월 8일 장녀 결혼. 파로스오피스텔
이원행 = 3월 8일 장남 김훈. 서울 뉴힐담호텔
황길휘 = 3월 4일 부친 별세. 동래대동병원 장례식장

제 19 회

김정대 = 4월 26일 장녀 결혼. 목화예식장
김현 = 딸 소프라노 '김정원' 귀국 독창회. 3월 29일 창원성산아트홀
성환진 = 5월 17일 장녀 결혼. 소공동 롯데호텔
송의준 = 4월 20일 장남 결혼. 목화예식장
이근식 = 시라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 행정대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출국
정승수 = 4월 12일 딸 결혼. 대연중앙교회
최영해 = 4월 12일 차녀 결혼. 울산 가족문화회관

제 20 회

김진환 = 3월 1일 딸 결혼. 부산롯데호텔 대연회장
남명우 = 5월 10일 딸 결혼. 미국 LA Whilshire 중앙교회
노기태 = 5월 28일 장모 별세. 여의도 성모병원 영안실
민영기 = 부산상공회의소 사부처장. 6월 21일 아들 결혼. 서울웨스턴조선호텔
박천웅 = "구상작가 5인전" 전시. 3월 20일 ~ 4월 13일 경기도 양평 갤러리 '서풍'

제 21 회

강병기 = 울산시 북구 양정동 원내힐스테이트APT 109동 1103호
권영순 = 울산대 금속공학과 교수. 4월 21일 제3회 울산시 과학기술인상 수상.
김병수 = 5월 31일 장남 김훈. 서울 롯데호텔
김석배 = 4월 13일 장남 결혼. 울산 문수컨벤션
박재선 = 6월 7일 장녀 결혼. 서울대 에너지이하우스위커킨 급탕
서정원 = 3월 29일 차녀 결혼. 서울 권주교 여삼동 성당
심상철 = 4월 5일 부친 별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오거돈 = 3월 11일 해양대학교 총장 취임(해양대학교 대강당). 차

녀 '오연정' 피아노 연주회. 5월 22일 문화회관 중극장
이강남 = 5월 6일 모친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상기 = 5월 17일 차남 결혼. 나린부캐웨딩홀
이정규 = 3월 30일 장녀 김훈. 미국 에트란트
이철 = 3월 8일 장녀 김훈.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
조영래 = 4월 27일 장남 김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조호제 = 4월 10일 고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오픈.
최철수 = 대흥R&T(방진교무제조업체) 부사장. (055)345-6391·011-9211-3839
한광수 = 3월 15일 장녀 결혼. 서울 엠 아모리스(메리츠타워내)

제 22 회

김상수 = 5월 10일 장녀 결혼. 라마다서울호텔
김수열 = 4월 5일 아들 김훈. 감사원 계1별관 4층 대강당
민대화 = 6월 15일 장녀 김훈. 강남북화문화원
박규모 = (주)KCC 서울 본사에서 울산 공장장으로 부임.
박은순 = 3월 15일 딸 결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
이재호 =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 뉴스」 개업. 장위동 뉴타운지구. 011-854-7660
최성철 = 5월 25일 별세. 연세세브란스병원 영안실

제 23 회

강현덕 = 6월 6일 장인 별세.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김정용 = 4월 12일 차녀 결혼. 호텔리츠칼튼 서울 그랜드볼룸
故 민원식 = 4월 18일 장녀 김훈.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
박건준 = 3월 19일 모친 별세. 부산의료원 영안실.
안원백 = 5월 19일 모친 별세. 이화여대 목동병원
윤영채 = 5월 25일 해물부레 「해마루」 개업. 서울지방명무정 정분 앞 대방동 성당 옆. (02)844-2011~2·019-9191-9633
이대영 = 4월 6일 장녀 김훈. 서울 수유동 마리비뉴 웨딩홀
이문희 = 5월 31일 장녀 김훈. 울산 롯데호텔

제 24 회

김상영 = 3월 1일 (주)포스코 권푸로 승진.
성정경 = 4월 4일 모친 별세. 봉생병원 영안실
故 우승호 = 4월 19일 장남 결혼. 라온 컨벤션 웨딩홀
유인환 = 5월 31일 장남 김훈.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
이석우 = 울산시 북구 달천동 달천아이파크 108동 902호
이완 = 4월 24일 장인 별세. 경남 기창유 상례 예식장
전용우 = 4월 25일 장남 결혼. 공항터미널컨벤션센터
조영태 = 6월 7일 장녀 결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최홍철 = 6월 14일 딸 결혼. 조선호텔.

제 25 회

성경철 =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5월 6일 부인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최신철 = 2월 25일 마산시 의사회 회장 취임.

제 26 회

김두천 = 서울제분 대표. 6월 18일 부산로타리클럽 총재 취임. 부산호텔
김석근 = 5월 25일 장녀 김훈. 울산 중구청

박장현 = 부산킨트리클럽 이사. 6월 27일 아들 김훈. 동래 허심정

제 27 회

강영일 = 4월 26일 부친 별세. 주례 브라운관 영안실
김기훈 = 4월 10일 부친 별세.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
김동명 = 일본 동경 니콘에서 근무하다 4월 1일부로 NPK(Nikon Precision Korea)로 발령. (031)288-5670·010-4807-4320
김윤재 = 5월 18일 장모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김정희 = 4월 7일 장인 별세. 창녕 현성병원 영안실
김재민 = 5월 26일 부친 별세. 고양 일산병원 영안실
김훈탁 = 경남기업(주) 부사장으로 승진.
노영수 =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과장. 지난 3월 10일 한림대 일송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일송상' 수상.
방명수 = 아들 '방식호'군 지난 2월 서울대 죽림사에서 학학공학 박사학위 취득.
방문성 = 2월 11일 부친 별세. 동아대병원 영안실. 부인 '남궁성화'여사 관화 전시. 3월 24일~3월29일 부산시청 2층 제2전시실
박원구 = 열람시스템(주) 대표이사직 사임 후 고려대학교 정보경영대학 교수 재직.
박진우 = 5월 7일 부친 별세. 남천성당
박철기 = 4월 19일 장녀 김훈. 부산호텔 2층 그랜드볼룸
서상철 = 6월 5일 부친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신재욱 = 3월 16일 다복식당 확장 이전 개업. 당리역 근처. (051)203-3680·010-2574-8379
안종택 = 4월 25일 변호사 개업. 공증인가 법무법인 「팩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피러스B/D 15F. (02)6360-5135·019-291-7756
오세현 = 3월 11일 장인 별세. 부산의료원 영안실
유대용 = 3월 6일 모친 별세. 배리늘병원 영안실
윤일근 = 3월 1일 차녀 김훈.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제라뉴홀
이광남 = 5월 21일 장인 별세. 강남 삼성병원 영안실
이원철 =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초대원장에 취임.
임승여 = 심층수련인 사업 이사. (주)대한신승수 사장. (051)264-7711·011-578-6620 홈페이지 www.danasoo.com
정종진 = 3월 1일 성민대학교(충남 천안시 병천면 소재) 부총장으로 승진.
최경룡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61-3 삼산현대APT 106동 902호
최용수 = KIST 책임연구원. 3월 22일 '꽃의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부인이 4월1일 강남 논현역 근처에 일식당 「유명(아리아게)」 개업. (02)512-7321
황삼진 = 한국은행 본점 국제부 부국장으로 이동.

제 28 회

김용희 = 3월 11일부터 SBS스포츠클럽 프로야구 해설위원을 맡음.
김병철 = 3월 25일 부친 별세.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김재주 = 6월 28일 장녀 김훈. 왕십리교회
석안식 = 6월 21일 장녀 김훈. 영등포 공근교회
손기장 = 4월 30일 별세. 부산대병원 영안실

<6면에서 받음>

유태준 = 5월 21일 신용보증기금 임원(상임이사)으로 승진.  
 임재덕 = 5월 18일 장녀 결혼. 웨스틴조선부산호텔  
 최종철 = 3월 1일 장녀 결혼. 세송세일교회  
 한기웅 = 「BEACH ONE 스크린골프존」 개업. 민락동 나경크리스탈타워 3층. (051)752-0987 · 011-274-2105

제 2 9 회

김갑태 = 3월 14일 장모 별세. 진주의료원  
 김기정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월 9일 장인 별세. 삼성서울병원  
 김대우 = 4월 2일 모친 별세.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김영찬 = 5월 1일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장에 취임.  
 김영화 = 부인이 명품 주방용품 전문점 「마세리」 개업. 동래 럭키아파트(구)상가 1층. (051)553-8777  
 김옥산 = 5월 18일 모친 별세. 경남 산정 자택  
 김인열 = 울산시 북구 달천동 달천아파트 102동 1401호  
 김정호 = 4월 10일 모친 별세. 영도 해동병원 장례식장  
 박광우 = 5월 7일 부친 별세. 남천성당.  
 박인규 = 4월 26일 한나라당 의정부 을 지역구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직으로 선출, 공식 취임.  
 박창민 = 한국은행 부산본부 1급 승진.  
 박철환 = 3월 11일 모친 별세. 동아대학병원 장례식장  
 변종만 = 기업은행 가락동지점 드림기업지점 지점장으로 승진발령.  
 서석희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정책관으로 영진.  
 서치홍 = 6월 6일 부친 별세.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신영기 = 3월 5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관으로 영진.  
 신용인 = 3월 10일 푸르덴셜투자증권 서울 강남영업본부장으로 영진.  
 어진우 = 단국대 죽전캠퍼스 기획조정실장으로 인사발령.  
 임광열 = 5월 1일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부임.  
 장세봉 = 5월 24일 장인 별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정연철 = 4월 28일 모친 별세. 동래 광혜병원 영안실  
 정희웅 = 5월 10일 장인 별세. 수

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조성진 = 5월 24일 장녀 결혼. 해운대조선비치호텔  
 최종열 = 5월 9일 부친 별세. 부산의료원 영안실  
 하세봉 = 3월 1일 해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부임.  
 허웅 = 한국외국어대 입학처장에 선임.

제 3 0 회

구을석 = 「서울 고시텔」 운영.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 뒤. 018-564-0068  
 김성복 = 3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로 발령.  
 김영호 = 3월 22일 모친 별세. 경남 수산 우리병원  
 김재철 = 부산 문화방송 보도국 보도제작부 편집담당 부장으로 발령.  
 김철광 = 4월 23일 장인 별세. 현대아산병원 영안실  
 김치영 = 울산시 남구 옥동 현대대륙1차APT 101동 104호  
 김해근 = 4월 2일 형님 별세. 남해전문장례예식장  
 노희석 = 3월 1일 부친 별세. 이대목동병원 영안실  
 왕순모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장으로 취임.  
 유재일 = 4월 28일 모친 별세. 주례 삼선좋은병원 영안실  
 윤성덕 = (주)태광 대표이사. 6월 21일 차남 결혼. 서울 신라호텔  
 이동명 = 주례여고에서 구덕고등학교 수학교사로 발령.  
 정광 = 4월 19일 장모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정성원 = 「강화삼계탕」 개업. 서면로타리 KT 후분. (051)808-3989 · 011-592-7248  
 정태환 = 4월 28일 장모 별세. 봉생병원 영안실  
 지진홍 = 3월 16일 장모 별세. 안락동 봉생병원 장례식장

제 3 1 회

김상익 = 4월 8일 부친 별세. 안산단원병원 영안실  
 김학현 =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부장으로 승진.  
 박석기 = 4월 11일 「명분부동산」 개업. 하단 가락타운 3단지후문  
 백현 = 4월 16일 모친 별세.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심규열 = 3월 7일 장인 별세. 양산소망요양병원 장례식장  
 전재휘 = 5월 2일 외식일본가 「포도청」 개업. 화명동  
 정복재 = 6월 9일 모친 별세. 부산중앙성당 영안실  
 조성제 = 4월 11일 장모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어디서 무엇을

지현철 = 4월 12일 부친 별세. 대구 경북대병원 영안실

제 3 3 회

박용득 = 6월 1일 부친 별세. 동래봉생병원 영안실  
 서길원 = 「현대산업발전기」 창업. 영도구 청학동 99-115. (051)404-5500 · 017-591-2271  
 성해경(독일 거주) = Rosensteinstrasse 18, 73557 Mutlangen, Germany. ++49 (0)179-2327-511  
 유희철 = (주)비큐러스 부산지점 BM취임. 핸드폰 017-560-5900  
 이동근 = 6월 2일 장인 별세. 동아대병원 영안실  
 이상진 = 3월 14일 모친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석희 = 5월 1일 대구(대명동)우리카드로 승진 전보. 3월 부인이 부산불교회관 2층에 전통다원 「甬松(보송)」 개업. 부산진구 양정2동 157-4 (불교회관내 2층). (051)862-3237  
 이순환 = 4월 1일 (주)한국메탈총괄사장 취임. 010-7119-0750  
 이응구 = 4월 21일 모친 별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이재갑 = 「성광화학」(케인트류취급) 설립.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65-22. (055)337-1921 · 011-854-8682  
 이훈 = 5월 24일 「OK호두점」 개업. 서창 삼호동 홍상읍 사무소 옆. (055)367-6464 · 010-5500-5756  
 주기훈 = 알리안츠생명 범천지점장 발령.

제 3 4 회

강동호 = 4월 29일 부친 별세. 부산의료원 영안실  
 김태현 = 4월 21일 부친 별세. 충주 건국대 부속병원  
 조시형 = 5월 24일 결혼. 창원 교원단체연합회관 3층 아이리스크딩홀

제 3 5 회

이성환 = 3월 14일 (주)경동도시가스 상무이사로 승진.  
 이창준 = 3월 7일 장인 별세. 침례병원 장례식장  
 전병선 = 3월 24일 장모 별세. 시흥 현대 요양병원

제 3 6 회

곽상호 = 부산지점에서 울산지점으로 인사 이동.

길인권 = 「천복밀면 개업」. 남포동 자갈치시장 입구 대로변  
 김창일 = 4월 29일 부친 별세. 고신의료원  
 박영기 = 라바짜블루 서울 본사 근무.  
 박철중 = 4월 14일 경상일보 논설위원에서 판매제작국장으로 전보.  
 신창우 = 울산지점에서 부산지점으로 인사 이동.  
 이동희 = 현대증권 김해지점에서 동래지점 부지점장으로 발령.  
 이소호(중국 거주) = 5월 27일 모친 별세. 중국 산둥성(山東省) 위해시(威海市)  
 이호 = 라바짜블루 서울 본사 근무.  
 허만호(미국 LA거주) = 별세.

제 3 7 회

김진우 = 5월 6일 별세. 영락공원 장례식장  
 박희선 = 3월 29일 모친 별세.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양귀수 = 5월 19일 부친 별세. 좋은강안병원 영안실

제 3 8 회

서구일 = 2월 12일 부친별세. 부산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이국원 = 2월 25일 별세. 미국 뉴저지 Frank Patti Funeral

제 3 9 회

김정남 = 4월 29일 「에스티엠」 이전 개업. 사하구 장림동 1146번지 에이스빌 301호. 016-9699-0915  
 나홍섭 = 3월 21일 모친 별세. 제일병원 장례식장  
 박건 = 「찰정형외과」(구.중앙정형외과) 이전 개업. 창원시 상남동 10-5 피아노빌딩 5.6층. (055)266-2288, 2277 · 010-3168-8600  
 장동수 = 장이쁜종합검진센터 이사. 010-6772-9967  
 정우영 = 4월 14일 장모 별세. 침례병원 영안실  
 한상훈 = 6월 8일 결혼. 스펠지웨딩홀  
 홍천상(일본 거주) = 3월 1일 카나자와대학 프론티어사이언스기구 연구원으로 소속 변경.

회보 제369호(2008.02.21) 어디서 무엇을  
 20회 정상구 = 1월 21일 "모친 별세"로 정정합니다.

기사가 넘쳐 "어디서 무엇을" 등 일부내용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양해바랍니다.

단신

1. 경고 이종운 감독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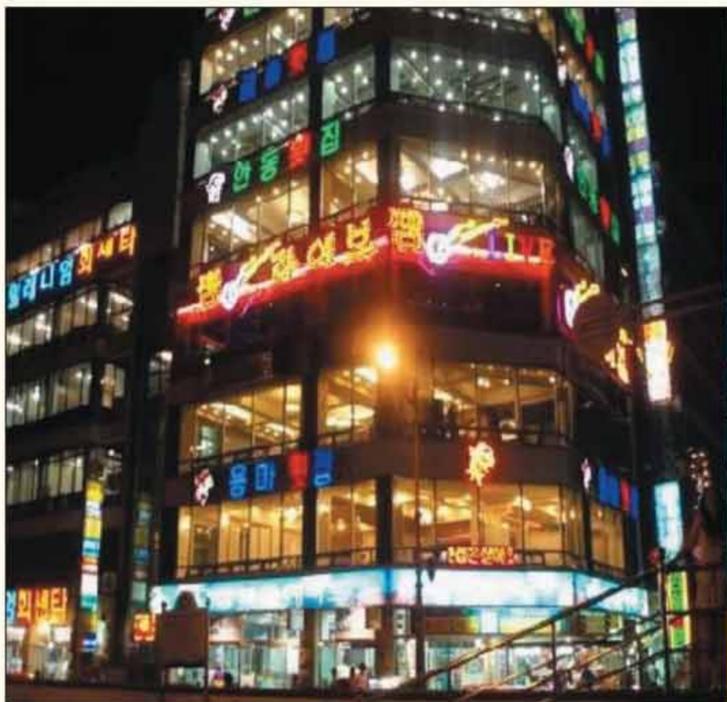
경고 이종운 야구부 감독(39회)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 23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수단 감독으로 뽑혔다.  
 이 감독은 이로써 2006, 2007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으로 지명되는 영광을 안게 된 셈이다.  
 한편 모교 선수로는 투수 박민규, 포수 김재민 군이 이번에 파견될 대표팀에 합류하였다.

2. 화랑대기 7월 21일 배재고와 1차전

부산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60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오는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덕야구장에서 치러진다.  
 모교를 비롯하여 24개 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청룡기 3연패 달성을 아깝게 하지 못한 모교 야구부의 대 활약이 기대된다.  
 1차전은 7월 19일 오후 3시 30분 배재고와 있으며 승리 시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마산용마고와 2차전을 벌인다.

3. 제16회 동기회 송정여름캠프

제16회 동기회는 매년 하계 휴가철 정기 행사인 여름캠프를 올해도 송정해수욕장 내 민박집인 '도가집'(051-703-4920)에서 7월 31일(목)~8월 3일(일) 3박 4일간 연다.  
 동창회 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응집 단결력을 자랑하는 제16회 동기회원들은 "모~이자!! 모이자!! 모이자!! 아~무 이유 없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동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동기회 051-248-0016, 옥윤석 019-375-2668



전망이 좋은 횃집

# 용미 횃집

"깨끗해서 좋고 맛이 있어 좋습니다."

\*동문들이 직접 오실 경우 10% 할인(B코스 이상)  
 \*소개 전화만 해 주셔도 10% 할인(B코스 이상)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용환 (31회)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 051-759-7337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011-574-5030



# 체육부속관 『南涯館』준공 - 구본능(21회 · 희성그룹 회장) 동문 기증



지난 6월 26일 모교와 동창회, 특히 경남고 야구부원과 학부모의 숙원이었던 체육부속관(야구부 기숙사) 남애관(南涯館)의 준공식이 여러 동문들과 야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남애관은 평소 모교 야구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구본능(21회 · 희성그룹 회장) 동문이 10억여원을 들여 지어 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3층 건물에 건평 218.57㎡, 연건평 644.82㎡로 최신 노출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감독, 코치실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생활실이 있으며 대회의실, 세탁실, 샤워실, 휴게실, 접견실 등이 구비된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향하는 현대식 건물이다.

이 날 준공식에는 기증자인 구본능 동문을 비롯하여 김종석 경남고 교장, 김근준 고문, 안강태 총동창회장, 배재욱 재경동창회장, 이길상 경야회 고문, 정병섭 동

문, 김희련 대한야구협회 부회장, 박영길 전 롯데감독, 허구연 위원 등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모교 야구선수 출신 모임인 경야회원과 평소 모교 야구 발전에 후원을 아끼지 않는 후원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남애관준공을 축하해 주었다.



이날 구 동문은 선수들에게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생활하기를 바라며 하고자 하는 정신과 노력만 있으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법"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한편 구 동문은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야간 경기 조명시설(라이트시설)도 해주시기로 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변용준(24회 · 한성전자 대표이사) 동문은 야구 실내 연습장 조성을 약속하였는데 변 동문은 지난 5월초 경남중에 야구부용 피칭머신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 '영원한 용마 야구인' 구본능(21회) 동문



모교 야구와 관련하여 구본능(21회) 동문을 때어 놓고는 이야기가 전개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구 동문은 경남중 학교 시절부터 야구를 좋아하여 야구부원으로 심신을 단련해 왔으며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야구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오면서 주위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다. 프로 야구인의 모임인 일구회에서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인 '일구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사진으

로 본 한국야구 100년'을 집대성하여 책으로 발간하였고 또 구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희성그룹 내 희성엔지니어링(주)는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모교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비 및 우수선수 체력단련비 지원, 전국대회 참가 경비 보조, 감독 급여 지급 등 평소 모교 야구 지원에 앞장서 왔던 구 동문이 자신의 호를 딴 남애관(南涯館)을 건립, 기증함으로써 마침내 전 동문의 숙제를 해결해 준 셈이 되었다. 구 동문은 구본무 LG회장의 첫째 동생으로 구본준(24회 · LG상사 부회장 · 프로야구 LG 구단주) 동문의 형이기도 하다.

# 국산관 리모델링 - 안강태 동창회장 개인 지원



국장식 강당으로 리모델링한 국산관

대한체육회장과 IOC 위원을 역임한故김택수 전 동창회장(1회)가족이 기증하여 1986. 4. 30일 개관한 국산관(국산: 김택수 동문의 호)이 리모델링 되었다.

개관 20년이 지나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안강태 동창회장이 개인 지원을 하여 강당의 자를 극장식으로 교체하였으며 빔프로젝트,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고 아울러 방염커튼 설치, 전기 관련 공사도 하였다. 이로써 국산관은 현대식 다목적 강당으로 탈바꿈하여 학년 단위 합동 수업 및 특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진학 설명회 등을 열 수 있게 되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클래식 음악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경고, 독일 마틴 부버 고교와 자매결연

지난 7월 4일 모교는 독일 베를린시 소재 마틴 부버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베를린 자유대 학교 종신교수인 박성조 동문(9회)의 안내로 마틴 부버고의 전임 교장으로 모교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고 온 엘마 캠프만 교장과 모교 김종석 교장 간에 교사 및 학생들의 국제 교류를 주요



들세줄 중앙, 자매결연을 주선한 박성조 동문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서를 상호 서명 교환함으로써 교사 및 학생들이 국제 이해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경희 재경고문(9회)도 같이 하였다.

한편 모교는 지난해 8월 오사카 건국학교와 국제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 "사랑하는 경남고여, 경고인이여 영원하라"

- 박상호 동문 시비 제막



문(26회 · (주)신태양건설 회장)의 시비 제막식이 있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1社 1

校를 맺어 모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 동문의 모교와 후배 사랑의 뜻을 높이 사 학교측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후배들에게 드높은 이상과 모교 사랑을 강조하는 글을 새긴 시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한편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 동문은 인조 잔디 야구장 조성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모교에 전달하였다.

[새긴 글내용 : 회보 제366호(2007년 7월 5일) 참조]

## 회비 납부 현황

(2008. 7. 9 현재)

### 1. 회장단 및 본부이사 <2008년도분>

- 회 장 : 안강태 (11회) 500만원
- 자문위원 : 강진평 (10회) 100만원
- 부회 장 : 김길제 (18회) 남진현 (19회)

이용흠 (19회) 우철성 (20회) 박상호 (26회) 최강호 (28회) 윤성덕 (30회) 박명진 (33회) 이상 200만원

■ 명예부회장 : 김형오 (20회) 100만원

### 2. 동기회(본회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 11회 · 17회 · 21회 · 25회 · 30회 · 32회 · 33회 · 34회 · 40회

# 신의. 창의. 성실을 중시하는 기업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 ◎ APEC 정상회의장 공동시공사업입니다.
- ◎ 2006년 건설기업 대상수상

※ 모교 발전 결연 기업입니다.

대표전화: 051-504-6698  
팩 스: 051-504-6809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회장 박상호 (26회)  
부회장 남진현 (19회)  
기술사 이상철 (41회)

